

일본 소학교 1·2학년 음악교육의 구조적 접근 및 한국 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

A Structural Analysis of Music Education in Japanese Elementary Grades 1 and 2: Implications for Korean Music Education

권혜근**

Hyekeun Kwon 

초록 본 연구는 2017년 개정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제작된 소학교 1·2학년 음악교과서와 서울 소재 일본 인학교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여, 음악교육의 구조적 특성과 우리나라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음악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음악 구성요소의 위계적 설계, 지역 전통문화를 반영한 실천 중심 수업, 표현·감상·창작이 통합된 활동 중심 교수법, 점진적인 악보 지도 방식 등 체계적인 교육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일본인학교 수업에서는 놀이와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 흐름 속에서 음악 개념의 자연스러운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통합교과 중심의 한국 초등 1·2학년 음악교육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과로의 전환, 체험 중심의 교수법 강화, 악기와 전통문화 중심 수업 확대, 발달단계 기반의 교수·학습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일본 학습지도요령, 소학교 음악교과서, 초등 1·2학년 음악교육, 음악 구성요소, 일본인학교 수업 사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rst- and second-grade Japanes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developed under the 2017 revised Japanese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s well as classroom cases from a Japanese school in Seoul, in order to explo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usic education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educat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Japanese music education exhibits a systematic structure with developmentally sequenced musical concepts and practice-based instruction that reflects local traditional culture. It also emphasizes activity-centered teaching that integrates expression, appreciation, and composition, along with a gradual approach to music notation instruction. In particular, Japanese school lessons in Seoul showed a class flow based on play and physical activity that facilitated the natural internalization of musical concept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eparating the music subject from Korea's integrated curriculum the early grades and recommends strengthening experiential pedagogy, expanding instrument- and tradition-based instruction, and design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music learning strategies.

Key words: Japanese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elementary music textbooks, early grade music education, musical elements, Japanese school case study

* This study is a revis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56th Summer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Association, incorporating additional content on the analysis of Japanese music textbooks and classroom observations at the Seoul Japanese School.

** First author, E-mail: chris0812@hanmail.net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5, Reviewed (Revised): 23 September (28 September) 2025, Accepted: 5 October 2025

© 2025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이 통합된 교과서 즐거운 생활을 통해 음악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교과 체계는 음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기초 예술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음악교육계에서는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음악 교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Ju, 2024; Kim, 2024; Lee & Park, 2024a; Lee & Park, 2024b). 이에 따라 교육 환경과 문화적 기반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교과서 및 수업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교과서 분리 논의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공시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한국의 교육과정의 해당함)은 2014년 문부과학대신(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文部科学大臣)이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 교육의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자문을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교육 실천과 학술 연구 기반의 논의를 거쳐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이 제시, 이를 토대로 2017년 3월 소학교 및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이 공시되었다. 이 개정안은 삶의 힘을 기르기 위한 자질·역량 중심의 학력관을 강조하였으며, 음악과 역시 학습자가 음악 활동을 통해 자율성, 창의성, 감성, 문화적 이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느끼고 생각하는 체험’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와 심미적 체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2017 음악 학습지도요령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두 개의 대표적 연구가 있다. 먼저,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을 개관하고 2017 학습지도요령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Kwon, 2017). 그러나 당시 2017년도에는 아직 교과서가 출간되지 않아 실제 내용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장르별·활동별 구성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Lee, 2021), 대상이 소학교 저학년이 아니었고, 교과서 중심의 연구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2017 개정 학습지도요령 음악과의 특징을 바탕으로 소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서가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교육출판(Kyoiku shuppan, 教育出版)과 교육예술사(Kyoiku geijutsusha, 教育芸術社)에서 출간한 1·2학년 교과서이며, 음악 구성요소의 위계성·연계성, 악기 활용, 전통문화 반영, 악보 구성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본다.

더불어, 문헌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의 수업 사례까지 포괄하고자, 서울에 위치한 일본인학교에서 소학교 1·2학년의 음악수업을 직접 참관하여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음악 구성요소와 수업에서의 구현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

하고자 하였으며, 교과서 내용이 실제 수업에서 놀이적 요소와 통합되어 구조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된 음악 구성요소가 소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초등 음악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2017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한 음악 구성요소가 소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서에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해당 구성요소가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초등 저학년 음악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교과 분리 논의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17년 일본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된 음악 구성요소는 소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둘째, 일본 소학교 1학년과 2학년 음악 교과서의 학년 간 음악 구성요소는 어떤 위계성과 연계성을 지니는가?

셋째, 일본인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음악수업에서는 음악 구성요소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II. 일본 2017 학습지도요령의 음악과 교육 내용 구조

1. 학습지도요령 음악과의 목표 개선 방향

2017 개정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자질·역량 중심의 학력관’을 기반으로 전 교과에 걸쳐 교육 목표를 재정비하였다. 음악과 역시 학년의 목표 개선을 실시하였다. 즉, 지식·내용 중심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소학교 음악과 개정의 기본적 사고방식(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7a)은 첫째, 음악에 대한 감성을 발휘하고, 타인과 협동하면서 음악 표현을 만들어 내거나 음악을 듣고 그 장점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한다. 둘째, 소리와 음악과 나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생활과 사회 속에서 소리와 음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식을 심화시키는 학습을 강화한다. 셋째, 일본 향토음악에 친숙해져 그 장점을 알고, 일본악기를 포함한 향토음악의 학습을 충실하게 한다.

이는 그 전의 음악과 목표와 크게 달라진 것인데 그 전의 목표는 첫째, 음악 활동에

대한 흥미·관심·의욕을 높이고 음악을 생활에 활용하려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둘째, 기초적인 표현 능력을 기른다. 셋째, 기초적인 감상 능력을 기른다(文部科學省, 2008)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2017 학습지도요령 음악과의 목표의 요소는 지식 및 기능의 습득,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의 함양(MECSST, 2017a)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개선하였다.

개선된 음악과의 목표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면, 첫째, 지식 및 기능의 습득은 음악을 이해하고 있는가, 음악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둘째,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은 음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음악으로 가능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셋째,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의 함양은 음악으로 어떻게 사회와, 세계와의 관계를 맺고 보나, 나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답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교과로서 음악을 배우는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요소에 따른 음악과 목표는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해 음악적 시각과 사고방식을 익히고, 생활과 사회 속에서 소리와 음악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2017 학습지도요령의 목표가 소학교 음악과의 목표에 어떻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음악교육의 역할과 지향점을 알 수 있다.

<Table 1> Applica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goals to the music subject goals for first and second grades 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guideline elements (2017)	Grade 1-2 music goals
(1)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s ➡	Understanding musical form and structure; developing skills needed for expressive performance.
(2) Development of thinking, judgment, and expressive skills ➡	Exploring musical expression and fostering the ability to appreciate and listen to music.
(3) Fostering motivation for learning and humanity ➡	Experiencing the joy of music to foster love for music, sensitivity, and emotional richness.

2. 콘텐츠 구성 개선

2017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정보화 시대, 글로벌화, 제4차 혁명의 도래, AI의 등장 등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해 개정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일본 학생들의 학력 현황과 관련하여 사고력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Lee, 2018).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것이 도입되어 자질·능력의 명확화, 커리큘럼 매니지먼트의 실현, 사회

에 열린 교육과정의 실현, 주체적·대화적인 깊은 배움의 실현으로 도입되었다.

자질·능력의 명확화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기를 수 있는지를 교과별로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커리큘럼 매니지먼트의 실현은 교과와 교과 외 활동(도덕, 특별활동 등)을 횡단적으로 연결하여 교육 목표의 통합적 실현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은 학교가 지역사회 및 현실 세계와 연계하여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과정이 폐쇄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개방적 교육 체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사회와 세계의 상황을 폭넓게 시야에 넣어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교 내에 닫히지 않고 그 지향점을 사회와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주체적·대화적인 배움은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 관심, 개성에 따라 사회와 연계된 고차원적 이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음악과에서도 이를 통해 지도해야 할 내용이 더욱 명확해지도록 하였다.

3.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방향 및 보완

중앙교육심의회는 2017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방향으로 음악과의 학습 지도 과제를 개정하였다. 지식 및 기능에 대한 명확화, 공통사항의 개선, 언어활동의 강화, 그리고 일본 향토음악에 대한 학습 강화를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통해 음악과 소리,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학습을 강화하였다. 음악과의 목표인 자질과 능력이란 생활과 사회 속에서 소리와 음악이 풍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생활과 사회 속에서도 소리와 음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식을 심화시키는 학습을 강화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공통사항의 지도내용 개선은 답신의 세 가지 사항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한다. 즉 지식 및 기능의 습득,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의 함양을 감안하여 개정 및 보완하도록 하였다.

셋째, ‘언어활동’ 강화를 통해 음악 표현을 함께 만들고, 음악 감상 후 느낀 점이나 특징을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였다. 다른 사람과 협동하면서 음악 표현을 만들어 내거나 음악을 듣고 그 장점 등을 생각해 보는 학습의 충실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소리와 음악 및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고, 음악과의 특성에 맞는 언어활동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음악 지도에 있어서 유의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일본 향토 음악’의 학습을 강화하고, 일본 전통 악기 학습의 학년을 조정하였다. 특히 전통음악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 학습자료 제공 방식과 교수법을 보완하였다. 이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그동안 5학년 6학년에서 일본 전통악기를 예시하였던 것을

3학년 4학년으로 재배치하였다. 또한 ‘음원이나 악보 등의 제시 방법, 반주 방법, 곡에 맞는 노래 방법이나 악기 연주 방법 등의 지도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는 전통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강화하였다.

4. 음악 구성 요소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는 음악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2> Musical elements in the music curriculum guidelines

Musical elements	
Elements that form music	Timbre, rhythm, tempo, melody, dynamics, layering of sounds, harmony, scale, tonality, meter, phrase
Musical structure	Repetition, variation, call and response,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in music

<Table 2>의 음악 구성요소를 보면, 익숙하지 않은 표현 중 ‘음의 겹침’, ‘주고받기’, ‘음악의 세로와 가로와의 관계’가 있다. 먼저 ‘음의 겹침’은 화성, 중첩된 소리, 앙상블을 느끼게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러 소리가 어우러짐 또는 소리가 겹쳐서 나는 느낌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표현은 여러 개의 소리가 동시에 나올 때 조화로움 또는 소리에서의 풍성함과 깊이, 감정의 변화 등을 느끼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합창이나 합주에서 각 파트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을 듣고 표현하는 것이다. 또 ‘주고받기’는 질문과 대답 또는 부름과 응답으로 음악에서는 소리를 주고 받으며 대화하자, 멜로디로 이야기해 보자 등의 표현에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선생이 도레미라고 부르면 학생이 미레도로 응답하기 또 리듬을 두드리면 같은 리듬이나 다른 리듬으로 따라 응답하기 등으로 교과서에서 사용한다. ‘음악의 세로와 가로와의 관계’는 일본 음악교육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주 등장하는 요소이다. 이 표현은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세로)과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가로)의 관계를 이해하자는 것이다. 리듬(시간적 흐름)과 화성(동시 발생)의 조화를 이해하자고 할 때 사용한다. 이 개념은 음악의 구조적 사고를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종전에는 학년별로 음악 요소를 제시하였으나, 2017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새로운 특징이다. 이는 학생의 발달 단계나 지도 목표에 따라 교재나 학습 내용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상황에 따라 반복적 지도를 진행하기 위해서이고, 이를 소학교 6년 동안 음악과 학습 활동에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Ⅲ. 일본 소학교 1·2학년 음악교과서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7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제작된 일본 소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출판사인 교육출판과 교육예술사에서 발간한 소학교 1·2학년 음악교과서로, 현재 일본에서는 2 곳의 출판사에서 음악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음악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분석은 출판사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 보다는 출판사의 1·2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음악 구성요소의 위계성과 연계성, 연주악기 종류 및 연계, 전통문화교육, 그리고 악보 구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교육출판의 1·2학년 음악교과서의 음악교육 내용

1) 음악 구성 요소의 위계성과 연계성

교육출판의 1·2학년의 음악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통해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한 음악 구성요소를 찾아보고, 연계성과 위계성을 분석해 보겠다.

<Table 3>을 보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연계되는 음악 구성요소는 리듬, 박자, 선율, 음색, 음계, 변화, 반복, 프레이즈, 음의 겹침, 주고받기가 있다. 1학년부터 학습지도요령의 음악 구성요소가 거의 다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학년에서 새로 등장하는 음악 구성요소는 ‘음악의 세로와 가로와의 관계’로 리듬과 화성의 조화를 이해하는 표현의 구성요소이다.

1·2학년에 나오지 않는 음악 구성요소로는 ‘조성’과 ‘화음의 어울림’이 있다. 조성의 경우는 3학년에서 등장하고, 화음의 어울림의 경우는 5학년 음악만들기에서 처음으로 화음에 대한 학습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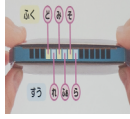
<Table 3> Musical elements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 music textbooks by Kyoiku shuppan

Grade 1	Musical elements		Grade 2
(intro) Playing with music	Meter	Rhythm	(intro) Playing with rhythm
1. Making friends with rhythm	Rhythm · meter · repetition · call and response · tempo	Dynamics · tempo · variation · repetition · timbre · call and response	1. Getting along with rhythm & do-re-mi
2. Making friends with do-re-mi	Melody · scale · variation	Meter · rhythm · melody · scale · phrase · overlap of sounds ·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in music	2. Getting along with rhythm & do-re-mi
3. Feeling the flow of melody	Melody · scale	Scale · dynamics	3. Discovering beautiful sounds
4. Discovering beautiful sounds	Timbre · rhythm · dynamics · call and response	Timbre · rhythm	4. Discovering beautiful sounds
		Rhythm · timbre	5. Festival music
5. The melody of songs	Melody · variation · repetition · call and response	Timbre · melody · repetition · variation	6. Flow of a song
6. Imitating with singing	Call and response · rhythm · phrase · meter	Repetition · tempo · overlap of sounds	7. Repetition and ornamentation
7. Playing together in harmony	Rhythm · meter · melody · overlap of sounds	Meter · melody · timbre · overlap of sounds	8. Playing together in harmony
(outro) Music land			(outro) Music land

2) 악기의 도입과 활용

소학교 1·2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연주 악기를 살펴보면, 1학년은 9종의 악기가 있고, 2학년은 9종의 악기에 새로운 6종의 악기가 추가되어 총 15종의 악기 소개가 있다.

2학년의 경우는 1학년과 동일하고, 우드블록, 귀로, 마라카즈, 오르간, 마림바, 그리고 일본 전통악기 북인 타이고(wataiko, わたいこ)가 있다. 그 외에 글로켄, 비브라폰은 악기 연주 자세에 관한 학습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2학년에는 전통악기 북 타이고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세계 여러나라의 북 종류를 설명한 후, 일본의 축제 마츠리(matsuri, まつり)에서 사용하는 전통 북을 목소리와 함께 연주하는 학습이다. 그리고 전통 북의 리듬을

1. Tambourine	2. Castanets	3. Bells	4. Melodion	5. Triangle
				
6. Cymbals	7. Bass drum	8. Snare drum	9. Harmonica	※Taiko
				

※The Japanese traditional drum taiko appears in the second grade music textbook.

[Figure 1] Instruments presented in the first grade music textbook by Kyoiku shuppan

창작하도록 하는데, 이때 목소리를 내며 만들도록 학습 활동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소학교 1학년부터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도 많고, 2학년으로 연계될 때, 1학년에서 학습된 악기와 더불어 2학년에서 새로운 악기가 추가되는 위계가 보인다. 또한 악기 연주에 대한 설명도 시각적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되어 있는 점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전통문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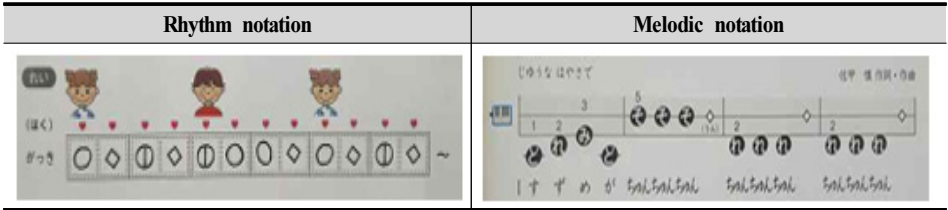
일본에는 전래동요인 와라베우타(warabeuta, わらべうた)가 있다. 이는 아이들이 일상이나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르던 노래로, 민속적·지역적 특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출판의 1학년 교과서에서는 와라베우타를 활용하여 노래 부르고와 함께 신체 활동을 병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학년에서는 5단원에 ‘축제 음악’이 독립된 단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의 지역 공동체 문화인 마츠리와 연계된 전통음악 교육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단원에서는 전통 북인 타이고를 중심으로 축제 음악의 리듬을 창작해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 각지의 축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통 북의 종류와 연주법, 연주 자세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전통예술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악보 구성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악보의 경우 오선보와 가로 형태의 리듬악보, 그리고 줄 형태의

선율악보가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리듬악보는 1학년의 경우 박자를 학습할 때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는 표시를 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2학년에서는 전통 북의 리듬을 창작할 때 이 악보를 사용한다. 줄 형태의 가락악보는 음계를 학습할 때 음높이를 알 수 있도록 나오는데, 이때 줄에 가사 대신 정확하게 계이름을 써줘서 음정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음높이를 느끼게 한다.



[Figure 2] Score types and notation used in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3. 교육예술사의 1·2학년 음악교과서의 음악교육 내용

1) 음악 구성요소의 위계성과 연계성

교육예술사의 1·2학년의 음악교과서의 구성 내용을 통해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한 음악 구성요소를 찾아보고, 연계성과 위계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Musical elements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 music textbooks by Kyoiku geijutsusha

Grade 1	Musical elements		Grade 2
1. Sing, dance, get along	Melody · meter · rhythm	Timbre · call and response · meter · rhythm · tonality	1. Connect with everyone through music
2. Feel the beat	Timbre · call and response · meter · rhythm · phrase	Rhythm · meter · melody	2. Feel the flow of the beat
3. Keep rhythm with the beat	Rhythm · meter · phrase · timbre · repetition · call and response	Timbre · melody · phrase ·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in music · overlap of sounds	3. Play with do-re-mi
4. Listen to sounds around us	Timbre · call and response	Timbre · tonality · overlap of sounds · repetition · melody	4. Enjoy sounds in everyday life

<Table 4> Continued

Grade 1	Musical elements		Grade 2
5. Make friends with do-re-mi	Timbre · melody · tonality · call and response	Rhythm · overlap of sounds · meter	5. Layer rhythms and have fun
6. Talk to each other through melody	Timbre · melody · tonality · call and response	Melody · phrase · repetition · meter	6. Find the repeated parts
7. Get along with instruments	Timbre · rhythm · meter	Timbre · call and response · rhythm · overlap of sounds	7. Discover the sounds of various instruments
8. Imagine with music	Timbre · melody · tonality · overlap of sounds · call and response · tempo	Timbre · rhythm · melody · repetition · tempo · tonality	8. Imagine with music
9. Enjoy songs from Japan	Melody · meter · tempo	Melody · phrase · meter · overlap of sounds	9. Connect through songs of Japan
10. Enjoy playing together in harmony	Melody · tonality · call and response · timbre · rhythm · overlap of sounds	Melody · overlap of sounds ·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in music · timbre · call and response · repetition	10. Enjoy playing together in harmony

<Table 4>를 보면, 교육출판과 같이 1학년부터 2학년으로 연계되는 음악 구성요소는 리듬, 박자, 선율, 음색, 음계, 변화, 반복, 프레이즈, 음의 겹침, 주고받기가 있다. 그리고 2학년부터 ‘음악의 세로와 가로와의 관계’가 처음 나온다. 시간의 흐름인 리듬과 화성의 조화를 이해하는 표현이다.

2) 악기의 도입과 활용

교육예술사의 1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나오는 악기는 모두 캐스터네츠, 탬버린, 멜로디언, 트라이앵글, 방울, 우드블록, 실로폰의 악기 총 7종이 있다. 2학년에서는 1학년에 나오는 악기 외에 전통악기 타이고, 작은 북, 그리고 두 개의 딱딱한 막대기로 구성된 타악기 클라베스 3종의 악기가 추가되어 총 10종의 악기 소개가 있다. 1학년부터 나오는 악기를 반복 학습하며, 새로운 악기의 경우 타악기로 소학교 저학년에서는 리듬에 학습에 집중함이 보인다.

3) 전통문화 교육

교육예술사의 교과서에서도 1학년에서 와라베우타를 도입하고 있으며, 단순한 노래 부르기를 넘어 놀이 방법과 결합된 ‘음악적 놀이’ 형태로 제시된다. 이는 음악적 요소(박자, 반복 등)를 신체적 활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유도한다.

2학년에서는 6단원의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보자’에서 마츠리 문화를 소개하며, 타이고 연주와 리듬 창작 활동이 포함된다. 특히 카드놀이를 활용한 리듬 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운 참여를 통해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악보 지도의 점진적 구조화

교육예술사의 악보는 오선보, 리듬악보, 선율악보를 활용한다. 1학년의 경우 리듬악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악기도 타악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악기 연주가 편리하도록 리듬악보를 활용한다. 멜로디언을 활용할 때도 오선보보다 리듬악보로 음의 길고 짧음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2학년의 경우는 1학년보다 오선보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리듬 학습의 경우 2중주 리듬 연습을 하는 학습 활동으로 심화된다.

일본의 교육출판과 교육예술사의 1·2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음악 구성요소의 위계성과 연계성, 연주악기 종류 및 연계, 전통문화교육, 그리고 악보 구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음악 구성요소의 위계성과 연계성이다. 1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리듬, 박자, 선율, 음색 등 기초 음악 요소들이 소개되며, 2학년에서는 ‘음악의 세로와 가로의 관계’와 같은 심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도되기보다는, 다양한 놀이 활동과 수업 단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둘째, 악기 활용을 통한 표현 활동의 확장이다. 1학년부터 다양한 타악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2학년에서는 클라베스, 작은북, 전통악기인 타이고 등 새로운 악기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표현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축제문화를 소개하는 마츠리 음악 단위에서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서 창작 및 감상 활동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며, 표현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수업 구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전통예술 교육의 실천적 접근이다. 1학년에서는 와라베우타를 통해 민속성과 놀이성을 결합한 음악 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에서는 마츠리 문화를 기반으로 타이고 연주 및 리듬 창작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 수업 내 전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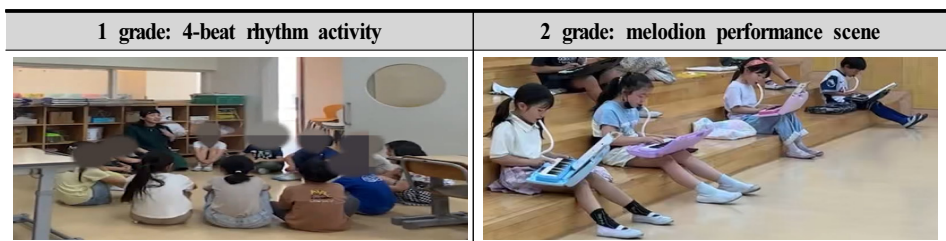
술 관련 단원을 직접 참관하지는 못했으나, 고학년 학생들이 타이고 연주를 통해 지역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문화 교육이 학교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실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악보 지도의 점진적 구조화이다. 1학년에서는 리듬악보나 선율악보 등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악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며, 2학년에서는 오선보를 활용하여 독보 능력을 기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업에서는 음악 개념을 먼저 신체적 활동과 청각적 자극을 통해 체험한 후, 악보를 활용한 확인 및 표현 단계로 이어지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도 방식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평가된다.

IV. 일본인 학교 소학교 음악수업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본 소학교 1·2학년 수업에서 이루어진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에서 음악 구성요소의 학습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5월 28일-6월4일 서울 마포구 일본인학교 소학교 1·2학년 음악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1학년 음악수업은 다용도 교실에서 각 40분 수업 2회, 2학년 음악수업은 음악실에서 40분 수업 2회 참관을 통해 수업 운영 방식과 교수·학습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저학년 음악수업에는 신체 기반 학습이 있었다. 1학년 수업에서는 교실 바닥에 학생들이 웅기종기 모여앉아 ‘도시락 반찬’을 주제로 4박자 리듬놀이를 진행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이 활동은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명씩 돌아가며 반찬 이름을 말하고, 이를 4박자 리듬에 맞춰 반복하며 친구들과 전달하는 신체 기반 리듬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활동 중에는 리듬을 실수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수업의 중요한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다. 핵심은 정확한



[Figure 3] Music class at the Japanese school in Seoul

연주나 정답 제시가 아닌, 신체를 활용한 음악적 박자 감각의 형성과 협동적 반응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경험의 축적에 있었다. 이는 음악의 구조와 감각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신체 기반 학습의 효과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념의 내면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수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다. 2학년 수업에서는 멜로디언을 활용한 학습이 관찰되었는데, 학생들은 먼저 계이름을 부르며 선율을 익힌 후, 느린 속도로 연주를 시작하고, 이후 점차 빠른 속도로 연주하며, 마지막에는 돌림 형식의 합주로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구조는 이해-연습-표현-개념화의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음악 개념의 내면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익숙한 악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음에 대한 안정적 감각을 형성하고, 둘째, 새로운 악기나 음악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표현의 확장을 유도하였다. 셋째, 신체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 리듬, 박자, 강약 등 음악 구성요소를 직관적으로 개념화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리듬과 화성을 통합적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음악 구조에 대한 감각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일본인학교의 저학년 음악수업은 놀이처럼 즐겁지만, 음악적으로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체계적 교수 설계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업의 흐름과 교수 전략은 우리나라의 통합교과 체제 하에 있는 저학년 음악교육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교과 분리 및 독립 교과서 개발에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소학교 저학년 음악교육은 체험과 놀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음악 개념을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표현력, 창의성, 감수성 등의 통합적 음악 역량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사인 교육출판과 교육예술사에서 발행한 소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고, 더불어 서울에 위치한 일본인학교의 실제 수업 사례를 참관하여, 일본 저학년 음악교육의 구조적 특성과 교수·학습의 실천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음악교육이 저학년 단계에서 음악적 기초 소양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음악 구성요소의 위계성과 연계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과서에서는 1학년에서 리듬, 박자, 선율, 음색 등 기초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2학년에서는 ‘음악

의 세로와 가로 관계'처럼 화성적 이해로 확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실제 수업 사례에서도 하나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단기에 학습하기보다, 놀이나 활동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점진적으로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개념의 체득과 음악적 감각의 발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악기 활용과 표현 활동의 확장성이 뚜렷했다. 1학년에서는 타악기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연주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2학년에서는 클라베스, 작은북, 전통악기 타이고 등 새로운 악기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수업 관찰에서는 기존 악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한 후, 새로운 악기나 리듬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으며, '마츠리 음악' 단원에서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창작과 감상까지 통합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전통예술의 실천적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와라베우타와 마츠리 음악은 지역 문화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며, 학습자가 전통문화를 감상하거나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놀이와 창작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실제 관찰 수업에서는 전통예술 단원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일본인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타이고를 연주하고 외부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례는 전통음악 교육이 실천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다.

넷째, 악보 구성의 점진적 구조화가 잘 설계되어 있었다. 1학년에서는 주로 리듬악보와 선율악보를 통해 직관적인 접근을 유도하고, 2학년에서는 오선보 사용을 늘려 음악 읽기 능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수업에서는 먼저 신체 활동이나 감각적 체험을 통해 음악 개념을 내면화한 후, 악보를 활용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학습자의 인지 발달 흐름에 부합하는 점진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교과서 내용과 수업 실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의 소학교 1·2학년 음악교육은 놀이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되, 그 안에 명확한 음악 개념과 구조를 내포하는 정교한 설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음악 구성요소, 악기 연주, 전통 문화, 악보 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적 구조화와 실천적 통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저학년 음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소학교 1·2학년 음악 교과서, 그리고 일본인학교의 실제 수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학년 음악교육의 구조적 설계 및 실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저학년 음악 교과의 분리 필요성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1·2학년은 통합 교과인 『즐거운 생활』 내에서 음악, 미술, 체육이 통합적으로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음악의 표현, 감상, 창작 등 본질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으

며, 학생들의 음악적 기초 소양 형성을 어렵게 한다. 이는 고학년으로 진급한 이후 음악교육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학년 초기부터 독립적인 음악교과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둘째, 체험 중심의 음악 구성요소 학습 강화이다. 일본 교과서와 수업 사례는 음악 구성요소를 단순한 개념 전달이 아닌 체험과 표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음악교육의 본질인 ‘느낌과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과도 부합한다. 우리나라 역시 감상 위주의 수업이나 단편적 교과 편성에서 벗어나(Lim et al., 2024), 구조화된 체험 중심 수업을 통해 음악 개념을 내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악기 활용 및 교구 기반 수업의 확장 필요성이다. 일본 교과서는 다양한 악기의 소개와 연주 방법, 표현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며 반복적 활용을 유도한다. 특히 수업에서는 익숙한 악기를 반복 활용한 후, 새로운 악기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현력 확장에 효과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통합교과 체계는 악기 중심 활동이 제한적이며, 반복 학습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악기 중심 표현 활동의 강화와 함께, 교구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수업 설계 및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전통문화 교육의 조기 도입 및 체계적 연계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1학년에서는 와라베우타를, 2학년에서는 마츠리 음악을 중심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놀이, 창작, 감상과 연계하여 실천적 교육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감수성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에서도 전통음악을 단순 감상이나 지식 전달 중심이 아닌, 창의적 표현과 문화 이해로 확장된 활동 중심 수업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음악 개념 지도에서 발달적 구조 설계의 반영 필요성이다. 일본의 교과서는 1학년에서 리듬악보, 선율악보 등 직관적 형식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2학년에서는 오선보를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점진적 학습 원리에 충실하며, 실제 수업에서도 신체 활동, 리듬 놀이 등 감각적 체험을 바탕으로 독보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한국의 음악교육에서도 발달단계를 고려한 음악 개념 지도 방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시사점은 향후 한국 초등 저학년 음악교육의 독립 교과화와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개발에 있어 학년 간 연계성, 전통문화와 지역성의 통합, 표현·감상·창작의 균형, 발달단계 기반 학습 설계 등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학년기 음악교육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놀이 중심 활동을 음악적 체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적 수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Educational Art Co. (2021a). *Music for elementary students grades 1* [小学生の音楽 1・2年]. Educational Art Co.
- Educational Art Co. (2021b). *Music for elementary students grades 2* [小学生の音楽 1・2年]. Educational Art Co.
- Educational Publishing Co. (2021a). *Elementary school music grades 1* [小学校音楽 1・2年]. Educational Publishing Co.
- Educational Publishing Co. (2021b). *Elementary school music grades 2* [小学校音楽 1・2年]. Educational Publishing Co.
- Educational Publishing Co. (n.d.). *Official website of Kyoiku shuppan*. Retrieved October 31, 2025, from <https://www.kyoiku-shuppan.co.jp/>
- Ju, D. C. (2024). Reality of ‘Enjoyable lif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a historical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Kore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2), 117-139.
- Kim, E. J. (2024). Comparison of music learning content in the ‘Pleasant life’ curriculum and textbooks under the 2015 and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61, 1-25.
- Kimura, T. (2025). Changes in the course of the government curriculum guidelines for music and the educational circumstances in Japan: Influence of the post-war developments of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Bulletin of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Fukuoka*, 74, 97-116.
- Kwon, H. K. (2017). Changes in Japanese music education – Focused on the 2017 Japanese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11(2), 45-67.
- Kyouiku Geijutsu Sha Co., Ltd. (n.d.). *Official website of Kyoiku Geijutsu Sha*. Retrieved October 31, 2025, from <https://www.kyogei.co.jp/>
- Lee, D. H., & Park, J. Y. (2024a).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Pleasant life” for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3), 135-165.
- Lee, D. H., & Park, J. Y. (2024b).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 in ‘Pleasant life’, the 2022 revised integrated textbook for 1st and 2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4), 133-163.
- Lee, J. H. (2018). A nalysis of competence-ba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Japan. *Korean*

- Social Studies Association*, 57(3), 105-119.
- Lee, J. Y. (2021). The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Japanese music education through represented Japanes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1), 105-129.
- Lim, E. J., Kim, S. J., & Song, J. J. (2024). A critical review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the ‘Pleasant Life’ subject: Focusing o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9(1), 55-78.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7a). *Course of study for elementary schools*. MEXT.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17b). *Course of study for elementary schools: Music - Official commentary*. MEXT.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n.d.). *Official websit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Retrieved October 31, 2025, from <https://www.mext.go.jp/>
- Nagano, I. (2023).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guidance -Proposal for enhancing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Research Journal of Jin-Ai University, Faculty of Human Life Studies*, 3, 19-33.
- Nishio, Y. (2024).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music -A comparison with the courses of study of other subjects-. *Annual Report of the Faculty of Education, Gifu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 73-79.
-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History of Music Education (2006). *60 years of postwar music education*. KAISEISHUPAN.
- Tsuboi, M. (2023). A consideration on “How to Learn” in elementary school music (ii): “Let’s Feel the Atmosphere of the Music” plan of class practice. *Journal of Nagoya Women’s University*, 69, 199-208.